

임금 격차·근로조건 열악...청년 '중소 기피' 심화

대기업 20대 임금 중기 1.6배...50대는 2.4배 인력난에 외국인력 확대·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중소기업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대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육아휴직 등 근로 조건도 열악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통해 청년에게 중소기업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대 대기업 근로자 임금, 중소기업의 1.6배
22일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2.1배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원으로 중소기업(215만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근로조건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천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절반인 47.8%에 그쳤고 10-29인 사업체는 50.8%였다.

◇중소기업, 청년 기피에 인력난...외국 인력 확대 요구
중소기업들은 청년층의 기피로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 외국 인력으로 눈길을 더 돌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천200개를 상대로 조사한 '2023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황에도 아

직 부족하다는 응답이 29.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성장한다는 꿈 제시해야"...유니콘 성장 사례 더 나와야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주거·복지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 김도성 서강대 경영대학장은 "중견기업, 강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젊은 세대가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족친화 인건기업 등과 같은 인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전남우정청, 농어가 상품 경쟁력 강화

70여 업체 참여 우체국쇼핑 상품품평회...지역 생산자 판로 확대 기대

전남지방우정청은 22일 "최근 광주·전남 생산자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해 '생산자와 함께하는 우체국쇼핑 상품품평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품평회에서는 광주·전남 생산자와 온라인 상품 판매를 희망하는 농어가 70여개 업체의 대표상품 174개가 전시됐으며 우체국쇼핑을 비롯해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티몬, 이베이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했다.

생산자에게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상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소품몰에는 광주·전남의 우수한 상품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문근석 전남지방우정청 직무대리는 "이번 상품 품평회가 광주·전남 농어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우체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농어가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Panasonic

REAL PRO MAN 1
가정의달 보상판매
최대 100만원 할인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89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파나소닉 안마의자 보상판매 이벤트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타사제품 포함) MAN1 최대100만원, MAK1을 포함한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24.4.5 ~ 2024.4.30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대중적 이해 높인다"

장애인고용공단 광주본부·지역사회 복지회 '고용촉진' 캠페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2일 "최근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 입구에서 광주지역 장애인 복지회인 사단법인 샘물복지회, 사단법인 아이티케어복지회, 사단법인 바른복지회와 공동으로 2차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용규 광주시의회의 의원, 진건 사단법인 광주시장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등도 참석한 가운데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 언론과 함께한 1차 캠페인(3월30일)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지역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3차 캠페인(4월25일)도 개최할 예정이다. 홍성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장애인 고용의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시간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광주지역이 장애인 고용 친화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지역주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단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훈련센터 운영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장애인 고용 촉진 캠페인을 통해 공단의 서비스를 더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지기자



광주국세청, 여성벤처협회와 현장소통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은 22일 광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임원 10여명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청취와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감면 확대, 소득세를 인하,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건의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고금리·고환율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과 맞춤형 세정 지원원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김현화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

벤처기업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성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법령 개선사항은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 여성 벤처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운영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은성기자